

# 31~33°C... 47년만에 가장 무더운 밤

### 지난 5일 밤~6일 오전 사이 최저기온 29.7°C 기록 1973년 이후 가장 높아... 10일 연속 열대야 발생 기상청 "따뜻한 남풍 유입... 북부쪽 편현상 겹쳐"

제주도가 47년 만에 가장 무더운 밤을 보냈다.  
6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사이 제주지역 최저기온은 29.7°C를 기록해 기상청이 열대야를 측정하기 시작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밤 사이 최저기온이 25°C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제주시 북부지역의 기온은 5일 오후 6시부터 6일 오전 3시까지 31°C

에서 33°C 사이를 오가다 이후부터 점점 낮아져 6일 오전 8시55분쯤 29.7°C로 내려갔다.  
종전 제주 지역 최저기온의 최고 값은 2017년 7월 23일 기록한 29.4°C였다. 또 같은날 서귀포(남부)가 26.3°C, 고산(서부) 26.6°C, 성산(동부)이 26°C를 보이는 등 제주 전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기상청 관계자는 "제주 전역에 따뜻한 남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북

부 지역에는 편현상(공기가 산을 넘어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까지 겹쳐 상대적으로 더 기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가 끝난 후 제주지역에서는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밤 사이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한 후 10일 연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달 28일 발효된 폭염특보도 제주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유지되다 이날 서귀포 지역에 한해서만 해제됐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길었던 폭염 지속일수는 1966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기록한 12일이었다. 올여름 폭염 지속일수와 불과 이를 차이이다.

단 기상청은 올해부터 폭염특보 발효 기준이 일 최고기온에서 체감온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기록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냉방기 이용이 늘어나 전력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주지역 전력수요는 96만5490kW까지 치솟아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역대 1위인 96만5760kW(2019년 8월 8일)와 비교해서도 불과 270kW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가장 무더운 밤을 보인 지난 5일 밤 제주지역의 최대전력수요는 94만1900kW로 올해로 기준으로 했을 때 2번째로 많았다. 이상민기자

## "상대지역 민주화운동 등 인식 넓히는 계기" 광주·마산·대구·제주 교사들, 역사적 사건 온라인 교류

### 4·3 수업내용 인터넷서 공유

광주, 대구, 마산, 제주지역 교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해 온라인 교류 수업을 한다.  
6일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실천교사모임)에 따르면 해당 지역 교사들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대구 2·28 민주화운동, 마산 3·15 의거, 제주 4·3항쟁 등 각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항쟁에 대해 수업을 하고 수업자료를 인터넷에서 공유한다.  
이를 위해 실천교사모임은 초·중·고 광주 10개, 대구 3개, 마산 4개, 제주 3개 학급을 이달 말까지 신청받아 10쌍의 자매결연 학급을 선정한다.  
선정된 자매결연 학급 교사들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가량 수업하고, 수업 내용(동영상·문건 등)을 실천교사모임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다.  
이후 교사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수업 내용을 가지고 '상대지역 역사적 사건'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한다.  
예를 들어 광주 A교와 대구 B교

가 자매결연 학급으로 선정되면 A교 교사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B교 교사는 대구 2·28 민주화운동 수업 자료를 사이트에 각각 올리면, A교 교사는 대구 2·28 민주화운동, B교 교사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수업 자료를 가지고 수업하는 방식이다.  
실천교사모임은 대구, 마산, 제주 지역에 조직된 같은 모임 교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자매결연 학급이 선정되면 2학기부터 온라인 교류 수업을 한다.  
실천교사모임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해당 지역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히 실천교사모임은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지역 교사들과도 민주화운동 등 온라인 교류 수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천교사모임 부회장이자 이해중 광주중앙초 교사는 "대구, 마산, 제주 지역 교사들을 광주로 초청해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소개하는 형태의 교류 수업을 하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활용한 교차 수업을 하기로 했다"며 "해당 지역 교사와 학생들이 상대 지역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분말·환 형태 식품제조 제주시 20일까지 전수점검

제주시는 오는 20일까지 분말·환 형태 식품을 생산하는 52개 업소에 대해 전수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새싹보리, 백년초, 감귤, 녹차, 양배추, 멸치 등 농·수산물 분말 또는 환 형태로 생산한 제품이다.  
제주시는 이 기간 금속 제거장치 설치 여부를 비롯해 ▷위생관리 상태 ▷유통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앞서 시는 올해 식품 제조 과정에서 '씻기' 등 이물질이 혼입된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 1곳을 적발해 유통중인 제품과 보관품을 압류·폐기조치했다. 이상민기자



한담해안산책로의 여유 6일 제주시 애월읍을 찾은 관광객들이 바다와 인접한 한담해안산책로를 걸으며 여유를 즐기고 있다. 이상민기자

## 카페·음식점 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 서귀포시 "위반업소 고발조치"

서귀포시는 이 기간 ▷방역 관리자 지정 ▷종사자 마스크 착용 ▷주거지 환기·소독 ▷시설 내 이용자 간 거리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살필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경고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획됐다.  
서귀포시는 이 기간 ▷방역 관리자 지정 ▷종사자 마스크 착용 ▷주거지 환기·소독 ▷시설 내 이용자 간 거리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살필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경고 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2식 이상 뷔페를 제공하는 등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11곳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 매주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정연주 위생관리과장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카페·음식점 이용자도 방역에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발열·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여행을 자제하고 여행중 증상 발생 시에는 139 콜센터나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현영준기자 yihyeon@ihalla.com

## 노점상 자리 문제로 갈등 80대 상해 입힌 50대 실형

노점상 자리 문제로 다투다 80대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 임항로 수산물 공판장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쯤 옆자리 노점상인 B(83·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리어카가 B씨의 노점상 자리로 넘어가면서 다툼이 시작됐는데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며 "이전에도 업무방해와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노점상 자리 문제로 다투다 80대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 임항로 수산물 공판장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쯤 옆자리 노점상인 B(83·여)씨와 말다툼을 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리어카가 B씨의 노점상 자리로 넘어가면서 다툼이 시작됐는데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B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며 "이전에도 업무방해와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 위기 1인가구 복지서비스

제주시는 지난 6~7월 50세 이상 64세 미만의 1인 가구 5627명 중 위기 상황에 놓인 701명을 찾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고위험군 82명, 저위험군 217명을 포함해 위험군

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잠재적 위기 상황에 놓인 402명을 확인했다.  
시는 이들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공적급여 ▷공공사회복지 ▷주거·교육 등 서비스 연계 ▷1:1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등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야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Gen Tec Parasol 고정식 접히는 파라솔 다양한 사이즈 5m / 4m / 3.5m / 3m

안전성 확보 제주시에서 직접 빠른설치부터 A/S까지 탁월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원치않은 와이어가 끊어져도 파라솔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고리가 있습니다.
- 플레이트 커버가 있어 잘못 밟아 다치는 위험을 예방하고 튀어나온 볼트를 가려 주었습니다.
- 누구나 파라솔을 펼치고 접을 수 있으며, 안전 커버를 별도로 준비 하였습니다.

대형파라솔 설치 및 A/S 문의전화  
젠텍 제주지사: 064)724-0991  
핸드폰: 010-3639-0050

## 감골묘목

### 2021년 식재용 예약

* 유라조생	1년생
* 카라향	1,3년생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변이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 010-2699-2355